

었다. 이 構造는 地上에서 液體가 地下로 흘러들어 가게 하는 特殊한 施設임을 알 수 있으나 用途가 무엇인지는 確證되지 않았다. 遺物은 發見되지 않았으나 이 遺構는 新羅統一時代의 造營으로 推定되었다.

二、慶州市龍江洞 古墳

洞民들에 依하여 粘土質의 封土가 約三分의 一除去된 後에 石室壁의 一部가 破壞된 古墳으로서 石室內는 高一·八五m 底面 二·三八m×二·一三m로 한 竪壁을 延長하여 길이 一·七五m 幅 九〇cm의 羨道가 달려있고 內壁全面에 二cm內外 두께의 面灰가 발려있었다고 한다.

玄室內는 一部攪亂되었으며 羨道附近에서 小量의 印花文 土器가 發見되었고 頭部 앞에서 蓮花文 수막새 기와 二枚가 있어 注目되었다. 方向은 東南向하고 있었다.

琴湖江流域의 無文土器文化

——燕岩山採集遺蹟과 性格——

尹 容 鎭

琴湖江은 慶尙南北道의 거의 中央을 貫通 南流하는 洛東江의 左岸側, 第一支流이다. 慶北의 迎日竹長面을 基源으로 하여 蛇行南流하면서 永川 古鏡에서 吉村川과 合流하고 다시 西流하면서 永川邑을 거쳐 淸通面五樹洞 地點에서 古縣川과 合流하며 琴湖를 거쳐 慶山押梁面 金龜洞地點에서 馬鬃川과 合流 다시 北流迂回하면서 大邱砧山, 山格洞地點에서 新川 및 西邊川과 合流, 達城多斯面鋤育洞에서 西北으로 迂回, 多斯面巴湖洞에서 洛東江本流와 合流한다.

이러한 琴湖江은 洛東江의 大支流로서만이 아니라 그 流域에는 先史 遺蹟은 물론이요 三國時代의 古墳群, 土城址 等 各時代의 文化遺蹟을 수없이 抱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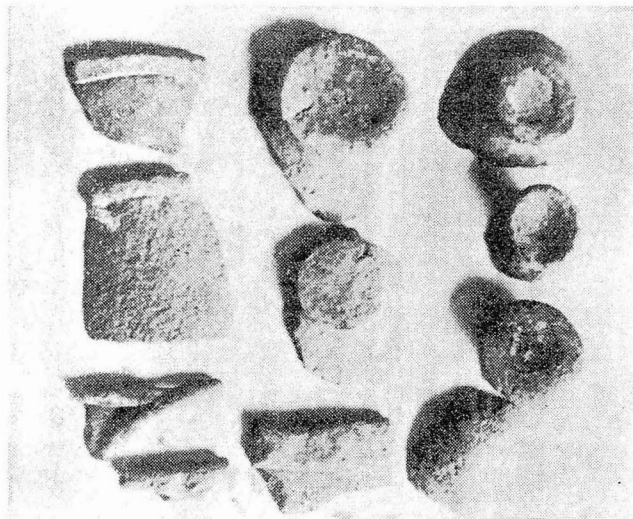
처음 計劃했던 琴湖江全域의 遺蹟遺物 및 調査考察은 紙面關係로 稿를 달릴 수 밖에 없어서 이 稿에서는 다만 代表的인 先史遺蹟의 하나인 大邱市山格洞 燕岩山丘陵의 採集遺物에 對해서만 記述하고자 하나 印刷關係로 圖面을 利用못함이 遺憾이다.

一、土器類

土器類는 모두 破片으로 露出되어 있었던 것을 採集하였기 때문에 器形態를 完全히 把握할 수 있는 것은 몇個 되지 않았다. 그래서 破片에 서 나타나는 種類를 分類하여 說明하기로 한다.

高杯類

상당한 量으로 採集되었으나 推測할 수 있는 種類로서는 나팔狀 圓錐形의 큰 臺를 具備한 것과 이를 縮소한 低少의 臺를 具備한 二種이었다. 이들은 다시 表面이 黑色으로 된 것과 赤褐色으로 된 二種이 있고 모두 石粒을 섞였으며 表面에 다 精良의 粘土를 발라 깨끗하게 한 것이 많다. 表面黑色의 種類에는 器壁內部까지 까맣게 된 것과 表面만 까맣고 內部는 灰色 또는



褐色의 것이 있다. 그리고 높은 圓錐形臺 가운데는 皿部下底까지 空洞으로 된 것과 台中間以上の 內部가 充塞된 것이 있었다.

壺形容器類

많은 量의 採集에도 不拘하고 高杯類와 마찬가지로 全體 器形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은 一個뿐이며 모두가 部分的인 破片이라 口緣部와 壺底部에 限定지워 推測할 수 밖에 없었다.

口緣部破片——여기에서의 種類를 보면 口緣部에 帶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區分할 수 있다. 帶가 없는 것은 量에 있어서 적었으나 그 가운데도 垂直으로 올라온 頸部를 具備한 것과 길게 나팔모양으로 外反하여 바라지는 形이 있었다.

口緣에 帶가 있는 것에는 그 斷面이 圓形인 것과 類似圓形、扁平形 그리고 끝이 얇아지는 三角形狀의 帶가 붙은 것이 있다. 器壁과 더불어 口徑曲率로 보아 小形에서 大形의 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大體的으로 크기에 比較 器壁의 두께가 얇았다. 그리고 大部分이 石粒을 섞었으나 그중에는 특히 얇은 것에는 純粘土만으로 燒成한 것도 있었다. 또 表面 色調에 있어서는 朱黃色 赤褐色 靑분홍色、黑色 등 여러가지가 있었으며 表面은 粘土를 발라 磨研한 것도 있다. 表面의 色과 器壁內의 色이 반드시 一致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付記해 둘 것은 帶를 具備한 가운데 斷面이 圓形 또는 類似圓形의 帶에는 손가락으로 帶의 한 곳을 눌러 器壁과 密着시킨 것처럼 한 것이 몇個 採集되었으며 또한 種類에는 口緣에다 帶를 돌려 붙이면서 帶端을 始作한 部分에다 直結하여 同一帶狀으로 만들지 않고 끝 部分을 始作한 部分으로 相接시키면서 아랫쪽으로 方向을 돌려 꼬리처럼 하여 器壁에다 내려 붙인 것이 몇個 採集되었다. 이러한 技法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三km 정도 떨어진 大邱市孝睦洞 陸軍醫務學校內 丘陵에서 採集한 土器片에서도 역시 發見되었다.

壺底部分——壺底에서의 各形態를 찾아보면 採集中 가장 많은 것이 낮은 굽으로 된 平底이고 그 외는 역시 낮은 굽에다 바닥中央이 약간 올라간 것으로서 斷面이 弧形으로 들어간 것과 段을 끼워 들어간 것

이 있었다. 이러한 굽의 外形에 있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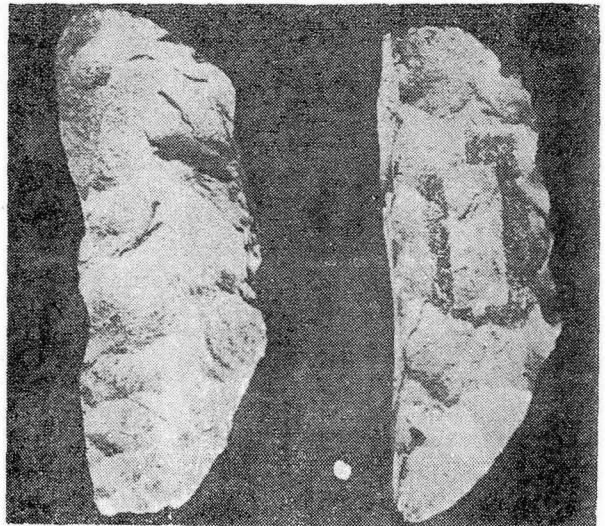
굽의 둘레가 垂直으로 되어 壺底에 붙는 것과 굽의 윗쪽에 오므려져서 壺底에 붙는 形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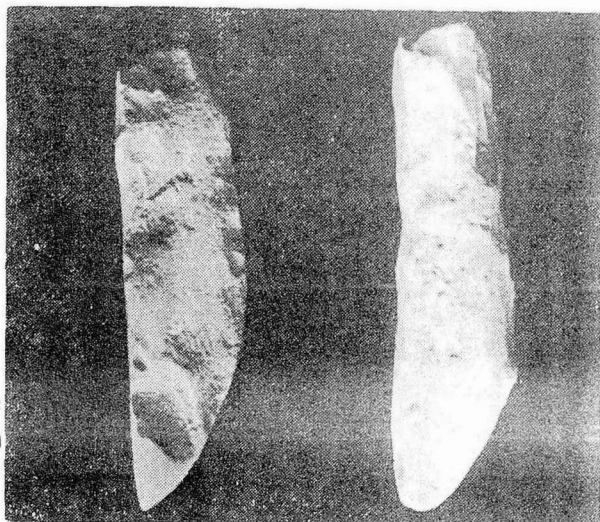
낮은 굽인 以上의 굽외에 다른 것에는 굽이 높아져서 一種의 臺狀으로 되는 底部가 있다. 이 종류는 낮은 것에 比較 全體적으로 작으며 斷面上으로는 가운데가 弧形으로 들어간 것과 平坦한 것이 모두 윗쪽이 좁아지면서 일종의 臺頸을 이룬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石粒含有狀態라던지 表面色調의 종류 등은 모두 口緣部에서와 같다. 復原을 可能케 하는 壺는 낮은 平底 굽에다 口緣部의 帶가 斷面上으로 三角形을 이루는 것으로서 新昌里甕棺墓地報告書 中 四〇號棺의 南棺과 같은 器形이다. 全高一九cm 底徑六cm 口徑約一一cm 굽高〇・五cm로서 石粒含有한 軟質의 赤褐色 無頸土器이다.

以外에 坩壺、側壁에 붙었던 突起把手가 있다. 量으로서는 限定없이 많다. 이 가운데 牛角形으로 된 把手가 가장 많고 두個의 牛角을 끝에서 붙인 모양의 것도 있으며 꼭지처럼 退化한 突起把手도 있다.

이 외의 採集物中 土製品로서는 많은 量의 網錘가 있다. 細楕圓形의 長軸中心에다 絲孔을 貫通시킨 一般形과 細楕圓形을 가운데에서 直交되게한 四突起의 特殊網錘가 있었다. 이는 絲孔이 內部에서 直交되게





되어 있다.

또 土製로서 劍把 頭飾一點이 있다. 橢圓狀의 背에다 三方으로 突起한 裝飾을 具備한 것으로서 表面은 黑色調를 나타내고 있으나 内部는 灰白色이다. 石粒이 含有된 吸水性이 강한 軟質의 製品이다. 그리고 圓盤狀의 紡錘車도 많이 採集되었다.

모두 無文土器이다. 土器가운데에는 陶車를 使用한 痕跡은 없으나 口緣이 外反 또는 垂直으로 올라온 종류가운데 帶가 없는 것에는 簡單한 回轉臺를 利用하지 않았나 하는 감을 주는 것도 있었다.

끝으로 土器採集中 軟質의 土器가 大部分이라 했으나 少量의 金海式土器라 불리우는 瓦質土器도 있었는데 이들은 石粒이 含有되어 있지 않고 陶車를 使用했으며 表面에는 繩蓆文이 있는 것도 있었다.

二、石器類

여기에서 採集된 石器로서 가장 많은 量을 차지하는 것은 有溝石斧이며 그외에 片刃平扁石器類 石鏃 半月形石刀 石劍片 兩刃石斧 有肩石斧 石槌 石底石 등을 들 수 있다.

片刃石斧——長方形의 얇은 Blade類를 利用하여 一端에다 片刃으로 加工磨研한 것으로서 날이 보이지 않는 裏面은 大개가 自然面으로서 平 平하던지 또는 같아서 平扁하게 하였던지 또 刃部가 보이는 面에는 平

平한 것도 있으나 상당한 量에 角稜을 지워 斷面을 三角形狀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刃部가 달린 反對쪽 端은 刃部幅보다 좁아지는 것이 共通이고 또 刃部가 보이지 않는 裏面을 平平하게 갈았던 것 외는 모두가 刃部만을 磨研하고 餘他面은 main flake surface 그대로를 두고 있는 것도 共通이었다.

石質은 大部分의 fornstone이고 片磨岩砂岩도 몇個 있었다. 以外の 片刃으로는 細長의 鑿具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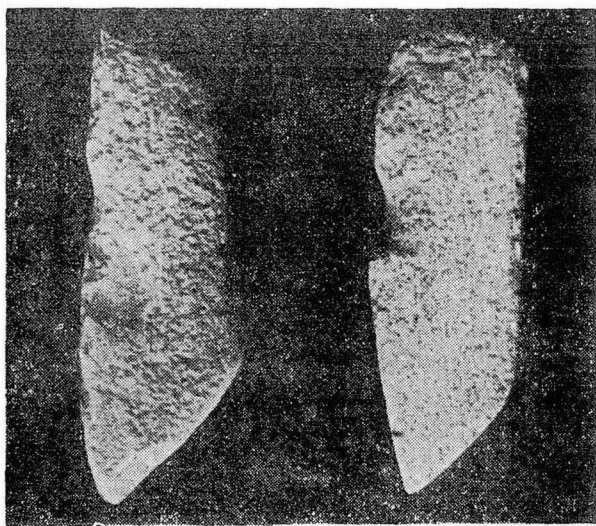
石鏃——三角形으로 兩邊에 날이 달고 底部는 平底(straight base)인 無整鏃의 大部分이며 一點만의 內曲한 底部(concave base)를 가진 것이 있었다. 斷面은 扁平六角과 菱形을 이룬 것 그리고 粗製의 것 등이 있었다.

半月形石刀——모두 破片으로 採集되어 完全復原은 어려우나 有孔、無孔의 二種이 있었으며 個中에는 背稜線과 並行하여 刃部가 內曲한 鏃形의 石刃도 있었다.

石質은 fornstone 砂岩 粘板岩이고 全面을 磨研하고 있었다.

兩刃石斧——現代의 鐵斧처럼 斧身上部는 좁아지고 身部도 얇고 刃部가 긴 形態이다.

有肩石斧——全表面을 細打하여 整形하고 斧身橫斷面은 橢圓形을 이루고 斧身上部는 段을 지워 좁아지며 刃部만을 兩側에서 磨研하였



다.

石劍——把手部만 二點 發見되었을 뿐이나 二段柄式과 一段柄式の 두 種類가 있었다.

石槌——卵形으로 된 形態가 가장 많았으며 上, 下端은 被打擊으로 말미암아 동글게 調整되다 시피 되어 있고 餘他側面은 Main flake surface 그 대로를 남기고 있었다.

有溝石斧——이 遺蹟地에서 採集된 石器 가운데 가장 많은 量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未成品을 合해서 三〇〇點 가까이 된다. 完成品의 大部分은 斷面이 三角形에다 角을 죽인 形이며 全面磨研도 있으나 大部分은 雙部와 溝가 있는 平坦面만을 磨研하고 餘他面은 flaking을 한 면 그 대로를 두고 溝가 있는 돌레에다 細打調整을 하였다. 크기에 있어서는 未成品 가운데에도 雙部와 溝가 마려진 것을 包含하여 그 身長을 보면 一—二cm에서 一—八cm까지 一定치 않은 規格이다. 다만 溝가 있는 部分의 橫돌레는 斧長에서 처럼 變異가甚하지 않고 一—三cm內外에서 머문다. 間或 一—四cm以上 또는 一—二cm以下로 되는 것이 있으나 이러한 것은 몇 個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돌레와 斧身長과 比例하지 않았다.

한편 이곳 採集의 有溝石斧는 未成品을 通해 찾아 볼 수 있는 現象 가운데 製作함에 있어서 우선 不定形細長의 石塊를 flaking하여 斷面을 三角形이 되도록 한 三角柱狀石核을 만들고 다음에 한 면의 端을 雙部가 되게 flaking하고 各面의 甚한 突起에 對해서 Controlled flaking을 하면서 溝를 만든다. 溝는 雙部가 보이지 않는 平坦面에 마려함은 有溝石斧로서 共通된 事實이나 여기에서 出土된 것의 溝位置는 대개가 斧身 上端에서 五乃至六cm 아래에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溝를 만들에 있어서 全部가 平坦面 全般에 橫條로 貫通하는 것이 아니고 percussion 段階에서는 面의 兩邊에다 角을 죽이는 정도로서 그친다. 使用石斧 가운데는 大部分이 이 段階에서 controlled flaking만 加하고 雙部와 溝가 있는 面만을 磨研하여 使用하고 있다.

보다 具體的인 說明은 稿를 달리 하겠거니와 여기에서 採集하면서는 겨지는 것은 南方의 有段石斧의 製作過程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三

圖面도 없이 記述하고 보니 遺物의 諸般特徵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이 遺憾이다. 正式報告書를 通해 그때 다시 具體的인 說明을 하겠거니와 여기에서는 이곳 遺蹟의 遺物을 通해 느낀 바를 結論的으로 몇가지 적어 두고자 한다.

土器에 있어서는 이 遺蹟地出土의 大部分이 金海式이라 불리우는 新羅土器始源의 것보다 앞서는 것들이며 이 遺蹟地文化의 末期에 金海式 瓦質土器가 發生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瓦質土器以前 段階에서 이미 器形에 있어서 많은 종류들이 生産되었다는 것이다.

石器類에 있어서 有溝石斧는 有段石斧와 一致되는 製作過程을 밟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形態에 있어서도 異質的인 것이다. 또 다른 地域의 既報告書와 關連시켜 생각할 때 有溝石斧는 거의 石刀를 同伴하다 시피 하나 石刀는 반드시 有溝石斧를 同伴하지 않은 例가 많다. 그리고 支石墓나 石箱墓 가운데나 自身の 見聞한 바로는 아직 棺內에서 石刀는 出土한 例가 있으나 有溝石斧의 出土例는 없어서 使用始發에 있어서 別途로 出現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有溝石斧는 柄이 붙는 掘地具로 使用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鑿具로 使用하였다 하기도 하나 掘地具로 또는 鑿具로 使用하기 以前에 製作始初目的은 手斧로서 그것도 柄을 붙인다는 前提를 하지 않고 했으리라 본다. 이러한 理由는 斧身長이 一定치 않는데 溝가 있는 身部들 레가 거의 一定한 規格을 가진다는 데서 생각되었으며 이 規格은 手內撐에 把握하는데 가장 알맞은 size이기 때문이다.

有溝石斧 그 自體를 機能分化的인 表現道具로 認定은 할 수 있으나 原始的인 機能을 크게 分化하지 못한 것으로 解釋하고자 한다. 即 限定된 것이기는 하나 一種의 tool of Almighty라 보고 使用途中에 作業對象에 따라 柄도 붙일 수 있고 掘地具 鑿具로도 利用할 수 있는 問題이다.